미국의 중국무역보복 한국피해 경미

35개 해당 주요품목별 미국 수입시장 점유현황
(1994.1 9) (단위 : 1000달러, %)

HS번호	대한수입액	대중수입액	한국 점유율	중국 점유율
17049020	2,272	3,488	1.3	2.1
39232100	3,589	20,801	2.2	12.9
39249055	1,429	69,424	0.8	40.9
39249020	2,225	22,838	3.5	36.1
40151100	555	10,419	0.2	3.0
42021100	7,189	44,608	7.5	46.3
44140000	537	14,699	6.6	12.8
44209065	1,929	8,799	5.9	17.3
48194000	21,841	32,951	25.7	38.7
49090040	2,723	15,713	3.7	21.3
62133010	315	713	11.6	26.4
62141010	7,695	4,595	2.2	21.3
64039990	152	1,223	4.8	38.1
64041120	112,645	164,048	29.2	39.1
71131950	15	14	1.1	1.0
73239300	43,722	26,381	28.5	17.2
74199950	2,775	12,692	3.0	13.5
85202000	4,805	47,440	2.0	19.7
85252060	1,650	5,190	7.5	23.4
94032000	10,171	36,385	2.2	7.8
94039080	4,604	5,846	4.9	6.2
94055040	836	16,408	1.0	19.1
95069960	4,365	24,397	4.9	27.1
95071010	26,480	23,746	36.5	32.7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투자비중이 높은 대만과 홍콩기업들의 피해가 크고 한국업계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무공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투자기업이 미국의 보복관세 대상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중국의 해당품목(35개)전체수출 10억 8000만달러의 50%에 달해 대만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홍콩업계도 중국투자기업의 보복대상 품목 대미수출비중이 중국 전체수출의 40%에 달해 무역보복조치가 시행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한국업계의 중국투자기업은 대만과 홍콩의 비중을 감안할 경우 수출피해규모가 최대로 추산해도 1억달러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신발기업 10개사, 스테인리스주방용품기업 15개사, 가방기업 35개사 등은 대미수출분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저널 1995/3/13>